

<글말교실 소감문>

4회차 글말 특강을 수강하면서 가장 먼저 본인의 글쓰기 습관을 체크할 수 있었다. 본인은 항상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여 유식하게 보이거나, 긴 글이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글말 특강을 통해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불필요한 글쓰기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먼저 글쓰기 전개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개념을 설명을 해주신 후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를 적용하여 직접 글을 써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셔서 개념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그동안 어렵게만 다가오던 글쓰기의 개념을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나가는 전개 방향과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추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모든 글쓰기에 있어서 처음부터 최종본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초고를 작성한 후에 점차 수정해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강의의 길이였다. 대부분 1시간 내외의 길이로 본인이 수강했던 글말 특강 4회차 강의는 1시간 12분 정도의 길이였는데, 목차를 기준으로 강의를 나눠서 들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긴 강의를 연속적으로 듣는 것보다 목차별로 강의를 나눈다면, 강의를 클릭하기 전에 강의 제목을 통해 자신이 어떤 내용의 강의를 들을 것인지 미리 숙지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본인이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긴 길이의 강의는 한 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칫하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의 내용을 나눈다면 강의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극적인 강의 수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큰 목차별 또는 주제별로 강의를 나눈다면 좀 더 효율적인 글말 특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면서 글말 교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지 않거나, 학교 공지사항 자주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은 글말 교실을 접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대학교 학우들이라면 스마트폰에 꼭 설치하고 있는 ON 국민 모바일 앱의 K*Talk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알림이 떴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말 교실의 글말 특강은 매 회차마다 특강 공지로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강 공지에 올라올 때마다 K*Talk 알림도 같이 온다면 홍보 효과가 보다 좋아질 것 같다. 일대일 코칭 홍보 또한 매 회차의 글말 특강 공지마다 같이 첨부하면 많은 학우들이 글말 교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될 것 같다.